

# 經濟成長과 食品工業

宋錫勳

(국립공업연구소 식품과장)

## 經濟成長과 工業의 發展

한국이 近間 高度 經濟成長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工業化 政策인 1·2次 經濟開發計劃이 성공적으로 完成되었고 3차 계획도 성공리에 進行되고 있기 때문이다.

第1次 經濟開發計劃期間(1962~1966)에는 年平均 8.3%의 經濟成長率을 維持하였고 第2次 經濟開發期間(1967~1971)에는 年平均, 11.4%라는 高度成長率을 達成함으로써 工業近代化 作業에 必要한 基盤을 마련 하게 되었다. 輸出部門에 있어 1961年 總輸出額이 40百萬弗에 불과한 것이 14년이 經過한 1975년에는, 150배가 훨씬 넘는 54,271百萬弗에 達하는 實績을 올렸다.

이러한 輸出伸張은 한국 工業의 質的·量的인 面이 同時에 擴大되어 工業構造가 크게 變化하였음을 斷的으로 立證한다고 본다.

1963年の 輸出商品構成은 1次産業 製品이 53.4%이었던 것이 1974년에는 38%로 大幅 줄어 들고 대신 工產品이 輸出大宗品을 이루게 되었다. 이는 産業構造가 高度化되고 輸出指向型産業體制에 直結된 重化學工業 및 其他戰略産業이 크게 伸張되었음을 뜻하며 한편 中小企業의 改編, 農漁村의 새마을 工業은 産業이 專門系列化하므로써 各部分別間에 有機的이고 調和있는 産業構造 體制가 이루어져 가고있다.

政府는 第3次 經濟開發計劃(1972~1976)에서 農漁村經濟의 革新的 開發과 重化學工業의 育成에 力點을 두고 當期間의 經濟成長 目標을 年平均 8.7%로 計劃하고 重化學工業을 爲始한 戰略産業을 持續的으로 發展시키고 그 加速으로서 제 4차 經濟開發計劃(1977~1981)中에는 年平均 經濟成長率이 11.0%에 達할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이 중 製品製品業의 工業構造에서 當期間長期展望은 다음 表 1 및 그림 1과 같이 豫想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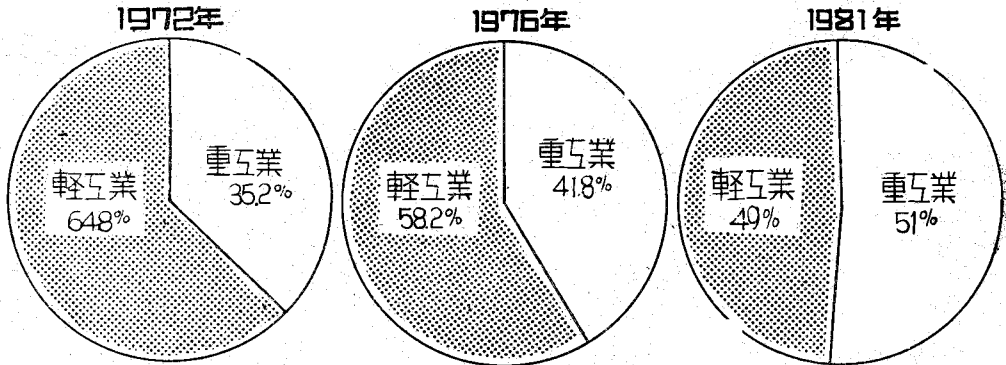
表 1 工業構造의 長期展望  
(1970年 生産額 基準) 單位 10億원

	1972 (A)	1976 (B)	1981 (C)	B/A	C/A
製品業	2,371 (100)	4,441 (100)	9,571 (100)	1.87	4.04
a) 輕工業	1,537 (64.8)	2,585 (58.2)	4,690 (49.0)	1.68	3.05
b) 重化學工業	834 (35.2)	1,856 (41.8)	4,881 (51.0)	2.23	5.86

註 ( )內는 構成比

資料: 經濟企劃院刊 (우리 經濟의 長期展望)

<그림 1> 우리나라의 工業構成比의 展望(1972~1981)



資料: 長期展望의 主要指標(經濟企劃院 1973)

國은 先進國에서의 技術導入으로 뒤떨어진 分野의 工業技術을 改善 강화하고 그에 依據, 輸出開發活動이 不振한 韓國의 立場으로서도 海外 先進技術導入이 바로 技術革新이며 이로서 先進國과의 技術隔差는 줄어들고 經濟發展에 必要한 推進力이 된다.

## 食品工業의 現況과 展望

### 加工食品의 成長

韓國의 食品工業은 1970年代에서부터 發生하게 되었으나 日帝下에서는 그 發展이 微微하였다.

또한 輸出目標은 1980년에 100億弗以上 輸出하게끔 年平均 24.3% 增加를 計劃하고있다.

이와같은 目標達成에는 輸出産業의 劃期的인 育成 發展이 實現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韓國의 全産業은 輸出産業 體制인 高度技術集約工業으로 整備強化하지 않으면 안된다.

即,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擴大를 위하여 機械工業 金屬工業과 더불어 主要 戰略産業乃至 生活關聯産業인 食品化學工業을 高度의 工業構造로 構築하고자 한다.

오늘날 技術導入은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기술개발의 한 중요한 手段이 되고있으며 後進

獨立後 美軍의 駐屯과 6.25動亂時 外國의 원조를 통한 각종 외국 食品, 특히 통조림을 中心으로한 各種加工食品의 登場으로 國民食生活도 變化되었으며 製糖工業, 製菓工業乳製品, 調味料, 製빵등 食品製造業이 대규모 現代式 工場으로 成長함으로서 우리 食品工業은 急進的인 發展을 가져왔다. 1970년부터 1974년까지 5年間 主要食品의 成長度를 보면 표 2와 같으며, 加工食品中의 大宗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食品工業의 尺度라 할수 있는 통조림 産業은 約 5倍의 成長을 보였고 加工食品의 原料가 되는 澱粉工業은 17倍며, 國民食生活의 여유를 나타내는 調味料, 乳製品은 2倍 특히 水果類

表 2

食 品 工 業 的 成 長

(70년도 100)

	70	71	72	73	74	成長指數
제 분(%)	960,581	1,109,523	1,399,754	1,117,999	1,401,184	146
제 당(%)	211,244	233,000	205,540	302,900	283,403	134
통 조 림(1,000box)	735	1,305	1,615	3,222	3,921	534
면 류(%)	80,349	102,118	94,014	95,556	110,402	137
청 량 음 료(1,000병)	284,838	374,058	394,252	585,851	443,694	156
주 류(kl)	1,427,821	1,670,616	1,799,819	2,084,662	2,170,609	152
장 유 류(%)	180,992	187,824	199,543	188,180	206,482	114
M.S.G (%)	13,090	18,594	19,487	25,528	32,166	246
제 유(%)	107,053	135,886	135,542	160,028	142,990	134
마아가린 및 쇼팅(%)	12,979	12,497	15,840	17,750	18,515	143
유 제 품(%) 시 유 분 유	20,990	27,100	38,935	55,671	73,913	352
	3,673	5,106	5,157	6,022	9,172	250
Ice cream (%)	32	32	2	1,599	3,952	12,350
진 분	4,958	60,390	60,687	80,070	84,306	1,700
포 도 당	6,975	6,845	9,870	10,300	10,468	150
김 치	69	150	247	208	361	523

는 무려 120배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보였다.

表 3 食品類의 輸出入現況

	1 9 7 2	1 9 7 3	1 9 7 4
輸 出	106,988(100)	245,588(230)	291,735(280)
輸 入	357,512	569,592(160)	818,246(230)
比 率	3.34	2.32	2.73

輸出食品의 增加

70年代에 들어 食品類의 輸出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72년과 74년 2年間에 約 3倍의 輸出伸張을 보였다.

또한 輸入과 輸出의 隔差도 점차 좁혀지고 있음을 알수있다.

食品이 他産業製品과 달리 쉽게 交流될 수 없다는 特性으로 생각될 때 輸出의 增加는 外貨 획득에 큰 기대를 갖게된다.

食品工業의 産業上의 比重

70年代에 이르러 한국 食品工業의 成長은 前者에서 說明한 바와같이 비약적인 成長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食品工業이 全體産業에 차지하는 比重은 표 4와 같이 總生産額이 全

表 4 食品工業의 産業上의 比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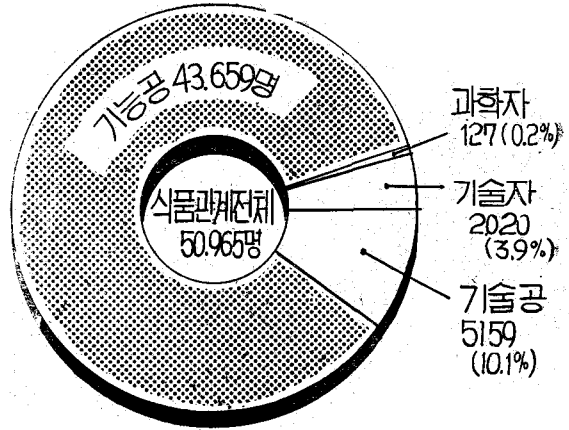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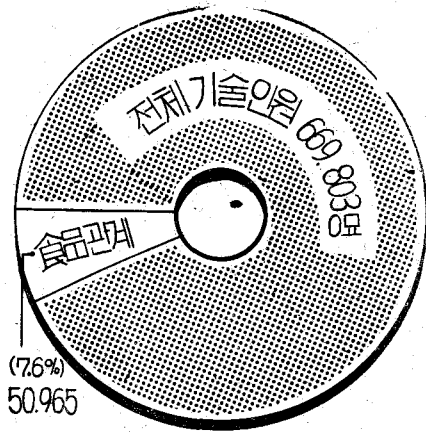
	사업체 (個所)	종업원 (명)	생산액 (100만원)
全體製造業(A)	23,729	973,415	2,241,608
食品製造業(B)	3,392	97,287	279,871
比 重 B/A	14.3	10	12.5

食品관계 技術人力 현황

體 12.5%, 고용원의 1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이와같은 食品工業의 發展기간이 되는 技術人力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같이 全體 科學技術人力의 7.6%인 50,965명이되며 이中 科學者는 1.2%인 127명, 高級技術者는 3.9%인 2,020명으로서 研究, 開發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었으며 나머지 技術工 10.1%, 技能工, 85.6%가 食品製造에 專門的 機能을 갖춘 從業員이라 할 수 있겠다.

이들 食品工業에 종사하는 全體人員 97,287명과 견주어 볼때 52.5%가 제조실무에 종사하는 인원이며 나머지 47.5%는 사무원등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韓國의 食品工業 展望

韓國의 食品工業은 世界的인 경제 不況에도 불구하고 70년대에 들어 急速度의 成長을 갖어와 年間 20%以上の 消費增加와 100% 가까운 輸出增大를 이루고 있다. 食生活面에서도 加工食品의 消費는 年々히 增加되며(表 3) 이와같은 추세는 國民所得의 向上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이다.

先進國의 食品工業發展過程이나 전문가, 정부당국의 見解로 볼때 1980년대에는 食生活의 40~50%를 加工食品으로 섭취될 것을 展望하고 있다.

이와같은 量的增加에 못지않게 質的인 面的 向上도 重要하며 現代社會가 要求하는 生活의 多樣化기호의 變遷에 順應할 自體의 品質開發은 勿論 새로운 食品의 개발 개선이 不斷히 要求될 것이다.

또한 韓國의 食品工業의 構成面에서 볼때 食生活에 直接 必要한 主副食의 産業化는 이루어 지지 않고있어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이 時急하다.

따라서 우리가 目的하는 重化學工業 完成을 이룩하려면 産業의 기반이 되는 우수한 노동력, 國民체위향상이 뒤따라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한 食生活의 加工食品化, 品質向上, 主要食品의 標準化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 이탈의 用語

**附加價值** : 일정기간에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는 그 전부가 그 기간의 생산 활동의 결과 생산된 純價値는 아니다.

왜냐하면 생산물의 가치는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原材料 燃料 動力 設備 機械 器具 등 生産財의 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물의 가치를 기계적으로 합치하면, 그 合計額은 2重계산을 면치 못하므로 새로운 가치 즉 순가치는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 생산활동의 참다운 성과를, 그 순가치를 알아내기 위하여는 생산액으로부터 이들 生産財의 사용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純價値를 附加價值, 혹은 純生産物이라고 부른다. 附加價值를 國民경제전체로 합계 한것이 國民純生産이다.